

特輯

世界 石油情勢를 진단한다

OPEC의
現實과 將來

金 秀 培

〈韓國經濟新聞 外信部 次長〉

I. 기묘한 카르텔

『어떠한 카르텔도 10년이 지나면 붕괴 위험을 받게 된다』고 獨逸의 경제학자 로베르트 리프만은 이미 1905년에 지적했다.

리프만은 그의 정평있는 카르텔理論에서 회원국들이 생산량의 40%를 감축해야할 상황에 이르면 카르텔은 解体되기 시작한다고 단정했다.

최근에 열리는 OPEC회의가 油價支持라는 카르텔 본래의 목적보다도 OPEC 자체의 붕괴 여부에 더 관심을 쏟게된 것은 바로 이같은 理論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OPEC 13개국 전체 產油量은 73년 석유파동 이전 수준의 60%선. 리프만의 理論대로라면 카르텔의 붕괴가 시작되는 危險水位에 이미 다다르고 만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의 價格支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열을 이탈, 슬금슬금 유가를 내리는 나라가 늘어나고, 입으로는 減産을 외치면서도 뒷전에서는 產油쿼터를 어기는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OPEC국가들이 정치적 변화를 겪어 오면서 4 차례나 석유공급중단 사태가 빚어져 그때마다 석유의 정치무기화를 지탄하는 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석유산업도 마침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좌우되는 환경이 도래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미래학자인 허먼 칸은 지난 80년 OPEC가 80년대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석유의 수요감퇴와 공급과잉, 非OPEC산유국들의 증산등을 OPEC 와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최근의 상황은 허먼 칸의 예언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모든 카르텔이 대개 그렇듯이 OPEC도 석유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를 때는 카르텔이 제대로 굴러갔으나, 공급이 넘쳐 가격이 떨어지자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사실 OPEC만큼 기묘한 카르텔도 없다. 회원국인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중인가 하면 사우디와 리비아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다. 이런 나라들이 무릎을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협의한다는 것 부터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II. 自業自得의 危機

1960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등 5개 産油국이 바그다드에서 회동, 창립한 OPEC는 당시 석유지배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국제석유메이저들이 원유값을 인하하는 등 산유국의 석유자원을 멋대로 주무르는데 대항하기 위해 조직됐다.

그후 카타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聯合(UAE),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리비아, 가봉등 8개국이 가입해 현재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OPEC는 발족후 10여년간 그 존재가 무시당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OPEC가 원유생산 및 공급과 가격정책 등에 공동보조를 추구하는 국제 카르텔로서의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기는 1973년 10월의 제 4차 中東戰 이후 부터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들에게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데 그쳤던 OPEC의 활동은 제 4차 中東戰을 계기로 1차석유파동을 일으키면서 보유자원에 대한 主權확보로 발전했다.

이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한 끊임없는 위기의식이다. 언젠가 고갈될 그들 유일한 석유자원을 최대한 溫存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增産보다는 減産과 가격인상을 통한 收入 극대화의 논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몰릴 때는 값을 올리고, 공급이 남아돌 때는 단결하여 산유량을 조절, 가격하락을 막는 방식을 취해 왔다. 73년 1차 석유파동과 79년의 2차 석유파동도 이런 논리에서 해석할 수 있다.

73년 中東戰을 계기로 석유 무기화를 선언, 減産과 가격인상을 병행했던 것이 1차 석유파동의 양상인데 비해 79년 2차 석유파동은 이란革命으로 석유공급이 감소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틈을 타서 값을 대폭 올린 것이 특징이다. 1차 때는 적극적으로, 2차 때는 수급불안이라는 시장상황을 수동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다르다.

1차 파동직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2.48달러였던 OPEC기준유가는 1차 파동이 일어난 73년말에는 5.18달러로, 2차파동 후인 81년말에는 34달러로 폭등했다.

이같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등 온건파의 점진적 가격인상노선을 누르고 당장의 收入확대에 급급한 강경파의 주장이 먹혀 들어간데도 큰 원인이 있다. OPEC는 유가인상 외에도 高價의 프리미엄부 고급유 끼워팔기, 수송권개입등 카르텔의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온갖 횡포를 일삼기도 했다.

이러한 횡포는 석유수요감퇴와 대체에너지개발, 非OPEC산유국의 증산을 촉진, 79년 하루 3,100만 배럴에 달했던 OPEC의 산유량은 지금 1,600만 배럴로 半減되는등, OPEC석유수요를 격감시켰고, 83년 3월에는 OPEC史上 처음으로 油價引下를 단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써 OPEC의 시장지배력은 실질적으로 상실됐으며, 지금 OPEC가 맞고 있는 위기는 自業自得인 셈이다.

OPEC사무국이 84년 11월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3년중 OPEC 13개 회원국들의 총 원유생산량은 82년의 하루 1,900만 배럴에서 1,699만 배럴로 감소했다. 에콰도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4개국만 산유량이 조금씩 늘었을 뿐 나머지 9개국은 감소했다.

또 수출량은 하루 1,224만 배럴로 전년도의 1,420만 배럴보다 13.8%가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1,62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의 2,041억 2,000만 달러보다 20%가 줄어들었다. 13개 회원국중 알제리, 에콰도르, 가봉,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등 6개국의 수출량이 전년보다 약간씩 늘어났을 뿐 사우디를 비롯한 7개국의 수출량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OPEC의 세계석유시장 점유율은 82년의 63.6%에서 59%로 떨어졌으며, 세계원유생산량에서 OPEC산유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82년의 35.4%에서 32.2%로 줄어들었다.

한편 經常收支는 81년 538억 9,000만 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82년에는 118억 달러의赤字로 反轉했으며, 83년에는 이같은 적자폭이 더욱 확대, 186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13개 회원국중 경상수지 赤字圈은 6개국, 赤字圈은 7개국으로 나타났는데 적자폭이 가장 큰 국가는 사우디로 194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OPEC 회원국들의 총 GNP(국민총생산)가 지난 1966년 이래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82년의 6,724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184억 6,000만 달러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몇차례의 분열위기를 넘기면서 24년간 지속되어 온 OPEC카르텔은 회원국들의 정치, 경제, 종족, 종교 등의 배경이 이질적인데다 매장량이 많은 사우디 등 페르시아灣 온건파회원국들과 그렇지 못한 이란등 강경파의 이해대립으로 內紛의 소지를 안고 있다.

중주국인 사우디등 온건파는 석유수요의 안정을 위해 油價引上, 產油정책등에서 自制하려는데 반해 강경파는 뒷날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高油價정책을 고집했으며,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들자 조금이라도 더 팔겠다고 아우성이다. 강경파 주도의 이같은 정책들이 오늘의 OPEC위기를 自招한 셈이다.

Ⅲ. 당면한 문제들

오늘 날 OPEC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야말로 市場支配 카르텔 자체의 본래적 문제점이 잘 드러난 실례라고 하겠다.

談話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집단적 독점기구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담합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공급자들이 담합형성 과정에서 배정받은 생산할당량을 초과하여 공급하려는 강력한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는 점이다. 담합에 의해 형성된 독점가격은 완전경쟁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마련이므로 개별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타 공급자들이 그들의 쿼터를 준수할수록 단독으로 쿼터를 초과하여 공급하면 곧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에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공급자들의 공급비중이 증대될 때 유혹은 더욱 커져 담합은 붕괴위기에까지 가게 된다.

OPEC가 일부 회원국들의 쿼터를 不履行으로 자초한 1차위기는 1차 석유파동 직후인 75년이었다. 그러나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그들의 하루 원유생산량을 74년 수준보다 각기 8.4% 및 35.7% 감축 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뒤 OPEC회원국들의 산유량 추가 감축이 초래한 2차 석유파동(79-80년)이래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代替에너지개발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확대되자 세계원유수요는 OPEC의 산유량 이하로 감소되면서 공급과잉현상이 만성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OPEC는 2차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기는 OPEC로 하여금 83년 3월을 기해 공시가격을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대폭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OPEC의 와해를 촉진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非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다. 특히 소련은 6년간 연속된 흉작으로 내년에 최소한 5,000만톤의 곡물을 서방시장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원유수출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소련산과 비슷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아프리카系 OPEC회원국들(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이 가격인하를 계획, OPEC기준가격체제가 전면적으로 등요하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볼 때 OPEC의 시장통제력은 소련의 농업위기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OPEC는 지금까지 거의 의식하지 않았던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한 경쟁상대와 省에너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선진공업국이라는 두 칼날 사이에 끼여있는 셈이 된 것이다.

OPEC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리한 減產정책에서 벗어지고 있는 갖가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에 의하면, OPEC국가들은 석유생산이 하루 2,125만배럴 이하로 떨어지면 국내의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며, 1,974만배럴 이하로 떨어지면 재정압박을 겪게되어 있다.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량은 사우디 641만배럴, 이란 361만배럴, 나이지리아 223만배럴, 이라크 211만배럴 등이다.

그러나 OPEC의 현 산유량은 하루 1,600만배럴 정도. 따라서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추가감산을 단행할 수 없는데도 價格支持에만 급급,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이 여기저기서 감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Ⅳ. 만연한 「石油病」

오늘 날 OPEC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지속되어온 油價不安의 영향으로 인플레이, 失業 확대, 부패만연, 정치불안등을 징후군으로 하는 새로운 「石油病」이 만연하고 있다.

이 석유병은 특히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과 같은 제 3 세계 회원국들 사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프리카의 석유富國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대규모 공업화 및 공공사업을 벌여 놓았으나 국가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의 감소로 예산을 30억달러나 축소하고 상품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할 형편이다. 야당들은 석유판매정책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가 OPEC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능력 이상의 과도한 外債 때문에 석유收入의 79%를 外債상환에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투자에 손을 쓸 겨를이 없다. 정치불안과 인플레이는 고조되고 근대화노력은 막다른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란은 아직도 석유 때문에 胚胎된 팔레비王政 시대의 부패와 황금만능주의에 반대하는 회교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이 때문에 이라크와 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조차도 공업화 및 공공복지사업의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의 사우디정부 예산은 하루 600만배럴 생산에 기초하고 있으나 현재 생산량은 400만배럴 이하로 축소됐다.

페르시아灣의 또 다른 富國 쿠웨이트의 경우도 문제는 심각하다. 라티프 알 하마드재무상은 쿠웨이트 경제가 공공지출 축소 및 석유收入 증대 없이는 3년내에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V. 뿌리깊은 회원국간의 갈등

OPEC를 본연로 물고가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회원국간의 뿌리깊은 갈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OPEC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에 도전하는 이란간의 反目は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美國 퍼듀대학의 中東史學者인 로버트 맥다니엘교수는 앞으로 이란이 사우디의 정치·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양국

간 긴장은 이란의 호메이니옹이 살아있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립은 이란의 급진적 호메이니 정권과 보수적 사우디王政간의 해묵은 정치적 싸움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이들 양국은 석유정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OPEC회의장 안팎에서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産油量을 둘러싼 양국간의 분쟁은 82년 3월 OPEC회의에서 이란이 自國에 배정된 산유쿼터를 거부하면서 시작됐고 그때부터 사우디와 그 盟邦들은 이란의 쿼터초과생산과 덤핑판매를 기뻐할때마다 비난했다.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중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카르텔을 무시한채 판매확장에만 신경을 써, 사우디가 생산하는 아라비안 라이트와 품질이 비슷한 이란 라이트를 항상 몇달러 싸게 팔아 사우디의 마켓세어를 잠식해 왔다.

대다수의 OPEC회원국들은 이란의 횡포에 지친 나머지 최근에는 이란의 카르텔 이탈행위를 「전쟁중」이라는 이유로 묵인해 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간에는 이란이나 나이지리아 등이 계속 異端의 태도로 나오고 非OPEC산유국들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전면적 油價戰爭을 치러서라도 이를 응징해야 한다는 극단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우디가 이같은 감정적 自害행위를 용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油價引下 경쟁이 석유시장질서의 재건이라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카르텔의 붕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인구가 적은데다가 과거에 대량으로 축적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어 대폭적인 감산에 따른 석유收入의 감소를 감내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감축이라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기준유가를 고수하는 길이 國益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OPEC 회원국중에는 인구가 많고 석유收入감소가 外換危機를 몰고올 가능성이 큰 국가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에 달하고 석유수입이 총 외화수입이 95%를 점하고 있어 석유수출의 부진이 외환부족상태를 초래, 이미 元利金상환부담액이 14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밖에 나이지리아와 유사하게 원유의 주요販路를 유럽시장에 의존하고 유럽의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지금까지 OPEC가 석유카르텔로서 기능해온 것은 사우디가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산유량 감축의 부담을 걸머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우디로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을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들은 OPEC를 살리는 길은 사우디의 추가감산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의 쿼터를 더 낮추길 요구하고 있다.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쿼터를 초과하면서까지 산유량을 높여 덤핑판매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사우디에만 추가감산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群小회원국들은 이같은 무리를 「부유한 나라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덮어씌우고 있다.

VI. 기능弱化해도 存續은 가능

프레드 싱거(美버지니아대 에너지정책연구소) 교수와 같은 에너지전문가는 앞으로 10년 내에 OEC D회원국들의 석유소비량이 하루 2,000만배럴 수준까지 줄어들어 OPEC국가들의 석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극단론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OPEC는 그 이전에 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랍의 석유전문가 타헤르 무사도 이제 OPEC의 석유독점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한다.

이들은 OPEC의 끝장을 예고하는 이유로 ▲석유 수요의 감소에 따른 판매전의 가열 ▲非OPEC 산유국들의 증산 ▲회원국간의 이념적 갈등 ▲석유輸入國들의 OPEC와해공작등을 꼽고 있다.그중에서도 OPEC원유에 대한 수요가 非OPEC산유국 쪽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OPEC의 와해

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재정을 전적으로 石油收入에 의존하고 있는 OPEC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판매시장이 줄어드는 데도 減産固守라는 단결력만 과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많이 팔아야할 입장이며 따라서 감산쿼터나 기준유가도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기 시작함으로써 회원국간의 판매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석유시장 전문가들은 80년대가 끝나기 전에 또 한두차례의 유가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OPEC의 통제력은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회원국간의 이념적 갈등이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를 비롯한 온전파들은 이란을 OPEC의 석유정책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로 경계하고 있다. 사우디, 쿠웨이트등 일부 국가들이 4년 이상 이란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라크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여전히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란을 페르시아灣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OPEC의 분열을 재촉하는 이같은 여러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석가들은 OPEC의 카르텔기능이 약해질망정 기구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의 군사태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인접국들은 되도록이면 이란과 정면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며 OPEC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후퇴하는 입장을 취하리라는 것이다.

사우디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란등 강경파들이 보다 넓은 시장을 차지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리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전망이다.

OPEC가 와해된다해도 산유국 입장에서 볼 때 OPEC와 비슷한 석유카르텔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OPEC가 기능이 약화될지언정 가까운 장래에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배적 전망은 바로 이같은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